

남북 교과서의 외래어 사용 양상 분석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엄태경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남북 외래어 수집 및 대응 쌍 확인
 - 2.1 자료 수집
 - 2.2 남북 외래어 전문용어 추출
 - 2.3 남북 미술, 음악 전문용어 대응 목록
3. 남북 미술, 음악 전문용어의 유형별 특징
 - 3.1 형태 동일, 원어 다름(2유형)
 - 3.2 형태 다름, 원어 같음(3유형)
 - 3.3 형태 다름, 원어 다름(4유형)
 - 3.4 기타 유형
4.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제언
5. 결론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322).

** 국립공주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중등 교육 과정 중 음악과 미술 교과에서 사용된 외래어를 분석하여 남북 간 표기 양상의 차이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래어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외래어 표기에서 각각 독자적인 규범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언어의 형태적 차이뿐 아니라 외래어 차용 경로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남북한 교과서에서 추출한 음악, 미술 분야 외래어 전문용어 231개의 대응 쌍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표기 방식의 규범적 차이와 차용 경로의 배경을 밝힌다. 분석 결과, 남한은 주로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 차용한 외래어가 많았으며, 북한은 러시아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모두에서 발음 및 음운 표기에 대한 규범적 차이로 인해 같은 단어라도 표기 방식이 상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남북한 문화적, 언어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 남북한 외래어, 음악 전문용어, 미술 전문용어, 외래어 표기법, 남북 언어 통합, 차용 경로, 교과서 언어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남북한의 중등 교육 과정에 사용된 외래어를 수집하여 그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외래어 표기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개념(또는 객체)을 같거나 서로 다른 표기 방식으로 나타낸다. 남한에 있는 외래어가 북한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남북 언어의 통합이 주요한 언어 정책으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의 교육 과정에 사용된 외래어는 남북 언어 통합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서로 다른 어문 규정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 또한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등 교육 과정 중, 음악과 미술 교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외래어 연구를 진행한다. 신중진 외(2019: 90~112)에 따르면 음악, 미술 교과의 경우 외래어 전문용어가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음악 교과에서는 악기 관련 외래어가 두드러지고, 미술 교과에서는 ‘비너스, 스톤헨지’와 같은 고유명과 관련한 외래어가 두드러진다. 남북의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전문용어들은 국제적으로도 공히 사용되고 있으며 남북의 언어 통합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문용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순(bassoon)이라는 악기가 있다. 남한의 음악 교과에서는 관현악의 주요 악기로 설명하고 있으며, 바순과 더블 바순(double bassoon)이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의 교과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악기를 소개한다. 그런데 이 악기 그 이름이 ‘화고트(fagott)’이다. 음악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두 악기가 동일한 악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남한의 음악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남한에서도 ‘화고트’와 비슷한 ‘파곳’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독일어에서 차용된 용어로 영어에서 차용된 ‘바순’과 남북에 각각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외래어는 단순히 외래어 표기 방식에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입 경로에 따라서도 구별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그 대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향후

통합된 남북 교육 과정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남북한의 음악, 미술 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를 수집하여 그 표기 양상을 비교한다. 그 과정에서 외래어 표기 규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어문 규범을 비교한다. 나아가 차용의 경로가 다른 외래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휘들을 정리하여 향후 진행될 남북 언어 통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2. 남북 외래어 수집 및 대응 쌍 확인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외래어 추출 과정 및 대응 쌍 확인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교육 과정에 사용되는 전문 학술 용어인 만큼 정제되고 정확한 외래어 수집이 필요하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는 (1) 자료 수집, (2) 남한 외래어 전문용어 추출, (3) 북한 외래어 대응 쌍 확인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전문용어 중, 외래어인 전문용어만을 다시 가려 뽑았다.

2.1 자료 수집

전문용어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관된 자료에서 균질한 전문용어를 확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보된 전문용어들은 실제 통일 현장에서 사용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자료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수집한 자료는 남한과 북한의 음악, 미술 교과서이다.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미래엔’ 등의 출판사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교육부에서 발간한 편수 자료도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해 확보하였다. 편수 자료는 교과서에서 추출한 용어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통일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류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주요 자료로 삼

왔고,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의 ‘자세히 찾기’ 기능으로 음악,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전문용어들을 다운로드하여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엑셀 목록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참고 자료로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Ⅱ》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2008년에 제작한 것으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술용어를 비교한 연구이다. 남한의 음악, 미술 용어와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음악, 미술 용어가 실려 있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편찬한 《편수자료 Ⅱ -인문·사회과학/ 체육·음악·미술 편》을 최종적인 검토 자료로 삼았는데, 실제 검인정 교과서를 각 출판사에서 출판할 때 이 자료에 제시된 학술용어를 기준으로 삼아 용어의 표준으로 사용하고, 색인어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2.2 남북 외래어 전문용어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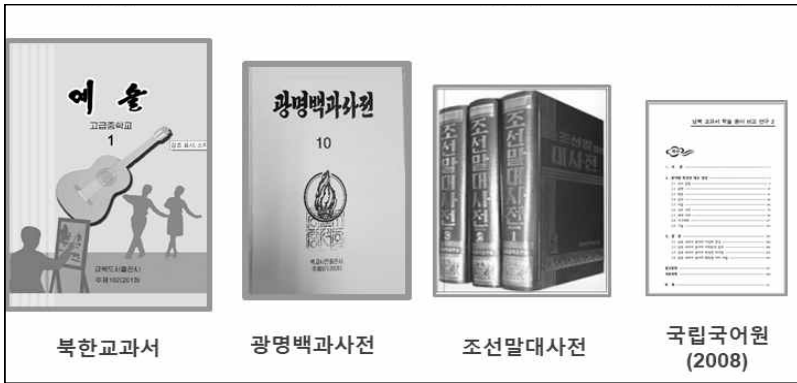
전문용어의 추출은 남한 전문용어 추출로부터 시작된다. 남한의 음악, 미술 분야 교과서와 편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용어를 직접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교과서에 실려 있는 색인(index) 어휘들을 중심으로 1차 용어 수집을 하였다. 색인 어휘는 세부 분야별로 핵심 어휘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에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음악 교과서에서 남북의 음악 용어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미술 교과서에서는 각 표현 영역의 용어들을 단원마다 정리해 놓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각 단원(영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문용어들을 고르게 확보하였다.

1단계에서 음악 전문용어 3,491개, 미술 전문용어 1,095개를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유의어들을 표준화하여 목록화하였다. 이때 편수 자료가 기준이 되었으며, 누락된 용어들은 편수 자료를 통해 추가되었다. 그 결과 음악 전문용어 3,017개, 미술 전문용어 898개를 남한 전문용어로 목록화할 수 있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전문용어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남한 전문용어 3,712개를 확

정하였다.

지금부터는 앞서 확인한 남한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북한 전문용어를 찾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북한 용어는 북한의 교과서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광명백과사전 6(문학, 예술)》, 《조선말대사전》,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II(국어원 2008)》 등 어휘집과 사전을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대응 용어를 찾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1] 북한의 음악, 미술 분야 참고 자료

북한의 교과서는 학제 개편이 단행된 이후의 교과서, 즉 2013년 이후의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북한의 경우도 교과서 전문용어는 엄선된 용어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어떤 자료보다 우선한다.

《광명백과사전》은 북한에서 발간한 가장 최근의 백과사전으로 음악 및 미술 분야의 총론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음악 이론, 음악 창작, 음악사 등의 다양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미술 분야 역시 미술의 본질, 미술 창작, 미술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전은 공인된 국가 기관인 ‘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펴낸 것으로 그 안의 내용이 북한 음악, 미술 분야의 표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교과서와 더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고, 대응 용어를 찾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조선말대사전》은 북한의 대표 기관에서 발간한 규범 사전이다. 따라서 표준성을 가지며 북한의 대표적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에는 수많은 전문용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특히 미시 구조에서 ‘다듬은 말’이라는 표지로 다수의 전문용어를 순화하여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사전이 북한 용어에 대한 뜻풀이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전을 통해 용어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외래어의 경우 그 원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사전의 특성상 원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II》는 남과 북 전문용어의 대응 쌍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써 활용하였다.

2.3 남북 미술, 음악 전문용어 대응 목록

아래의 표는 미술 분야의 남북 외래어 전문용어 대응 쌍을 목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남한 용어는 대부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통일성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용어의 경우, 중등 과정 교과서, 《조선말대사전》, 《광명백과사전》에 있는 표기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교과서 표기를 대표형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 양측 외래어의 표기별 특징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다.

번호	분야	남한 용어	원어	북한 용어	원어
1	미술	간다라	Gandhara	간다라	Gandara
2	미술	고딕	Gothic	고시크	gothic
3	미술	굽타	Gupta	굽타	

4	미술	네페르티티	Nefertiti	네페르찌찌	
5	미술	다다이즘	dadaism	다다이즘	dadaisme
6	미술	다비드	David	다비드	
7	미술	라오콘	Laocoon	라오콘	Laokoon
8	미술	랭스 대성당	Reims	란스사원	
9	미술	로마네스크	Romanesque	로마네스끄	Romanesque
10	미술	로코코	rococo	로꼬꼬	Rococo
∴ (중략) ∴	∴ (중략) ∴	∴ (중략) ∴	∴ (중략) ∴	∴ (중략) ∴	∴ (중략) ∴
222	음악	피아니시모	pianissimo	피아니씨모	pianissimo
223	음악	피우모소	piu mosso	피우모쑤	
224	음악	피치카토	pizzicato	피치카토	pizzicato
225	음악	피콜로	piccolo	픽콜로	piccolo
226	음악	하모니카	harmonica	하모니카	harmonica
227	음악	하이든	Haydn, Franz Joseph	하이든	
228	음악	하프	harp	하프	harp
229	음악	허밍	humming	허밍	humming
230	음악	헨델	Händel, Georg Friedrich	헨델	
231	음악	호른	Horn	호른	Horn

<표 1> 남북 미술 교과 전문용어 비교 목록 예시

위 표에서처럼 미술 분야의 남북 외래어 대응 쌍이 총 53개이며, 음악 분야의 외래어 대응 쌍은 178개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외래어 대응 쌍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산피에트로 대성당’, ‘아시리아 미술’과 같이 외래어와 한자어, 고유어가 결합한 용어의 경우, ‘대성당, 미술’과 같은 고유어와 한자어는 제외하고 외래어(외국어)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즉 ‘산피에트로’, ‘아시리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3. 남북 미술, 음악 전문용어의 유형별 특징

남북의 언어 차이는 형태의 차이와 의미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상의 차이는 대부분 남과 북이 각각 제정한 어문 규범이 어휘에 적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광복 후 남한에서는 서울말을 바탕으로 한 표준어를 규범어로 정했고, 북한에서는 평양 등지의 북부 지역 말을 바탕으로 한 문화어를 규범어로 정했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어문 규범이 만들어지면서, 남북의 언어는 표기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어문 규범을 통일하기 위해 상정해 볼 수 있는 단계로는, 먼저 남북의 어문 규범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다. 그다음으로 규범을 통합하여 남북 규범어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남북의 어문 규범에 대한 고찰이다. 남북의 어문 규범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의 규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울러 그 차이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 이러한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남북의 어문 규범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체제가 통일된 뒤에야 비로소 언어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어문 규범의 통일을 지향하되, 현재는 남북의 어문 규범을 통합하기 위하여 남북의 규범을 이해하고 각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남북의 외래어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과 북한의 ‘외국말 적기법’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장에서는 남과 북의 외래어 전문용어의 차이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하나는 남과 북의 표기 차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당 외래어의 원어 차이이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총 네 가지의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남과 북의 표기가 동일하고 원어 또한 동일한 유형(1유형)이다. 예를 들어 ‘모더니즘(modernism)-모더니즘(modernism)’이 있다.¹⁾ 둘째는 남과 북의 표기는 동일하지만 원어가 다른 유형(2유형)이다. 예를 들어 ‘다다이즘(dadaism)-다다이즘

(dadaisme)’과 ‘리라(lyra)-리라(lira)’가 있다. 셋째는 ‘고딕(gothic)-고시크(gothic)’와 ‘피네(fine)-휘네(fine)’ 등과 같이 표기는 다르지만 원어가 동일한 유형(3유형)이 있다. 끝으로 표기와 원어가 모두 다른 유형(4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모티브(motive)-모찌브(мотив)’와 ‘듀엣(duet)-두에토(duetto)’ 등이 그러하다. 이 장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설명을 하되, 표기와 원어가 같은 1유형은 제외하고 차이를 보이는 2, 3, 4유형을 주로 살펴본다.²⁾ 또한 이 유형에 속하지 않는 대상을 기타 유형으로 삼아 정리하겠다.

유형 구분	미술 교과	음악 교과	합계
1유형(표기 같음, 원어 같음)	24 쌍	80 쌍	104 쌍
2유형(표기 같음, 원어 다름)	5 쌍	4 쌍	9 쌍
3유형(표기 다름, 원어 같음)	9 쌍	37 쌍	46 쌍
4유형(표기 다름, 원어 다름)	2 쌍	7 쌍	9 쌍
기타 유형 ³⁾	13 쌍	50 쌍	63 쌍
합계	53 쌍	178 쌍	231 쌍

<표 2> 남북 미술, 음악 교과 전문용어 대응 쌍 유형별 통계

3.1 표기 같음, 원어 다름(2유형)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과 북의 표기가 같고 원어가 다른 2유형의 대응 쌍은 총 9개가 있다. 높은 비율을 보이지는 않지만 외래 용어의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특정 분야(음악, 미술)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외래어는 러시아에서 유입된 사항이 많다는 기존의 논의(한용운 2013: 13)를 고려할 때, 음악과 미술 교과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를 확인해 본 결과, 러시아에서 용어가 유입되었다기보다 프랑스어, 이탈

1) 앞의 용어가 남한의 용어 표기이고, 뒤의 용어가 북한의 용어 표기이다.
 2) 1유형은 남북의 통합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으므로 본 논의에서 특징을 세세히 다루지 않고 2, 3, 4 유형의 논의에서 더불어 설명한다.
 3) 원어를 확인할 수 없는 유형과 오표기, 오류 유형을 기타 유형으로 묶었다.

리아어, 스페인어 등의 로망스어 계열의 용어가 두드러졌다. 우선 다음의 예를 확인해 보자.

- (1) 다다이즘(dadaism-dadaisme), 모자이크(mosaic-mosaique),
바리톤(baritone-barytone)
- (2) 라오콘(Laocoon-Laokoon), 메트로놈(metronome-metronom)
- (3) 간다라(Gandhara-Gandara), 마투라(Mathurā-Muttra)
- (4) 리라(lyra-lira), 발라드(ballade-ballad)

위 (1)의 예에서 남한은 영어식 표기를 북한은 프랑스어식 표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다다이즘은 영어에서 ‘dadaism’으로 표기되며, 이는 ‘-ism’이라는 영어식 접미사를 반영한 형태다. 반면 프랑스어에서는 ‘dadaisme’로 표기되며, 프랑스어 접미사인 ‘-isme’이 덧붙여 표기되었다. 모자이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mosaic으로 표기되어 간략하게 표기된 반면, 프랑스어에서는 접미사 ‘-ique’를 붙여 mosaique로 표기한다. ‘baritone’은 그리스어 ‘barytonos’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어 표기에서는 ‘y’를 ‘i’로 바꾸어 표기함으로써 간결한 표기와 발음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어에서는 ‘barytone’이라고 표기하여 원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2)의 예들은 영어와 독일어의 경로를 보여주는데, 특히 메트로놈(metronome-metronom)에서 남한은 영어식 표현을 원어로 보아 끝에 ‘-e’를 유지하며 원어의 철자를 반영하였지만, 독일어에서는 ‘-e’를 생략하고 간결한 형태인 ‘metronom’으로 표기하여 발음의 간소화와 함께 철자도 단순화하였다.

(3)의 두 예는 지역명을 나타낸 것인데, 남한에서는 현지식 발음을 따라 적었고(Gandhara, Mathurā), 북한에서는 오히려 영어식 표현을 적은 특징이 있다.

끝으로 (4)에서 리라는 특정 나라의 언어로 보기는 어렵지만 원어를 살려 표기한 ‘lyra’와 간결하게 표기한 ‘lira’로 구분할 수 있다. 발라드는 (1)의 예와 반대로 프랑스식 표기를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고, 영어

식 표기를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다.

(1)부터 (4)의 예들은 동일 어휘가 어떻게 우리말에 들어와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단순 표기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과 북의 용어가 큰 문제 없이 언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남북 언어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르게 흘러 들어 온 외래어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표준화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3.2 표기 다름, 원어 같음(3유형)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국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어의 언어 규칙을 따라야 하고 국어식으로 발음해야 한다.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2017)’은 총 4장으로 21개 언어의 표기법이 있고, 북한의 ‘외국 말적기법(2001)’은 머리말과 일러두기, 9개 언어 적기법으로 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남과 북이 원어는 같지만 표기가 다른 대응 쌍이 총 46 쌍으로 1유형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외래어 표기 규범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 남북 용어는 된소리 표기와 관련된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전과 교과서의 용례에서는 된소리로 표기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외래어 표기 원칙을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외래어 표기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5)⁴⁾ 르네상스-르네쌍스
- (6) 에스키스-에스끼스, 로코코-로꼬꼬, 로마네스크-로마네스꼬
- (7) 알타미라-알따미라
- (8) 고딕-고시크

(5-8)은 미술 용어이다. (5)는 남한에서 ‘ㅅ’으로 표기한 것을 북한에서는 ‘ㅆ’으로 표기한 용어들이고 (6)은 남한에서 ‘ㄱ’으로 표기한 것을 북한에서 ‘ㄲ’으로 표기한 용어들이다. (7)은 ‘남한에서 ‘ㅌ’으로 표기한

4) 예시 중 앞의 용어가 남한 용어이며, 뒤의 용어가 북한 용어이다.

것을 북한에서는 ‘ㄷ’과 ‘ㅈ’으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8)에서 남한은 ‘Gothic’의 ‘thic’를 ‘딕’으로 표기하는 반면에 북한은 ‘시크’로 ‘-’음절을 추가하여 표기하고 있었다. 또한 [θ]의 발음이 남한에서는 ‘ㄷ’으로, 북한에서는 ‘ㅅ’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음악 분야의 외래어는 크게 인명, 악기, 연주법 등의 용어들이 발견되는데, 미술 분야의 외래어와 동일하게 된소리 표기의 차이가 확인된다. 또한 모음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예를 확인하여 보자.

(9) 솔-쫄, 솔로-쫄로, 크레셴도-크레쨌도, 소나타-쏘나타, 글리산도-글리싼도, 소나티네-쏘나티네, 메노모소-메노모쏘, 소프라노-쫄프라노, 포르티시모-포르티씨모, 피아니시모-피아니씨모

(10) 메조포르테-메쫄포르테, 메조피아노-메쫄피아노, 메조소프라노-메쫄쫄프라노, 스포르찬도-스포르짚도

(11) 칸타타-깐따따, 캐스터네츠-까스따넛띠, 오라토리오-오라또리오

(12) 페르마타-훼르마타, 피네-휘네, 파-화

(9)-(11)은 음악 용어로, (9)는 남한에서는 ‘ㅅ’으로 표기한 것을 북한에서는 ‘ㅈ’으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10)은 남한에서 ‘ㅈ, ㅊ’으로 표기한 것을 북한에서는 ‘ㅉ’으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11)은 남한에서 ‘ㄷ’으로 표기한 것을 북한에서는 ‘ㄸ’으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12)는 [f] 발음을 남한에서는 ‘ㅍ’으로 표기하고, 북한은 ‘ㅎ’으로 표기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과 북이 하나의 음운에 대응시킨 하나의 기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잉글리시 호른-잉글리쉬 호른’에서 “어말 [ʃ]는 ‘시’, 자음 앞의 [ʃ]는 ‘슈’,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세, 쇼, 슈, 시’로” 적는 남한 규범에 따라 남한은 ‘잉글리시’로 표기하고 북한은 ‘잉글리쉬’로 표기하였다.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모음의 표기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13) 가. triangle(트라이앵글-트라이앙글), tambourine(탬버린, 탐브린), castanets(캐스터네츠-까스파넛띠)

나. flute(플루트-플류트)

다. bass(베이스-바스)

(13가)는 ‘a’ 모음에 대해 남한에서는 ‘ㅏ’ 북한에서는 ‘ㅑ’ 모음으로 표기한 예이다. 그리고 (13나)는 ‘u’ 모음을 남한에서 단모음으로 표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중모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예이다. 한편 (13다)의 ‘a’ 모음을 남한에서 이중모음으로 표기하는 용어를 북한에서는 단모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이다.

(14) cornet(코넷-코르네트), trumpet(트럼펫-트럼페트),

(14)는 남한에서는 어말과 자음 앞에 오는 무성 파열음은 대체로 받침으로 적고, 어말과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 남한의 규범에 따라 남한은 ‘ㅅ, ㅆ’ 받침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으’로 음절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원어는 같지만 남과 북의 표기가 다른 예들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파열음에 대해 남한에서는 예사소리를 주로 사용하고 북한에서는 된소리, 거센소리 표기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성의 모음 표기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a’ 모음에 대해 ‘ㅏ’, ‘ㅑ’ 등으로 각각 적어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중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이 무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표기하는 반면 북한은 어말에 ‘ㅡ’ 음절을 추가하여 표기한다. 이러한 표기 차이는 향후 남북 언어의 통합에 있어 어문 규범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잘 보여 준다.

3.3 표기 다름, 원어 다름(4유형)

남과 북의 용어가 표기도 다르고, 원어도 다른 유형의 예는 총 9개가 있다. 미술 교과 용어 2개, 음악 교과 용어 7개인데 남한의 용어는 대체

적으로 영어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이탈리아어와 독일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5) 바순(bassoon)-화고트(fagott), 더블바순(double bassoon)-콘트라화고트(kontra fagott)

(16) 듀엣(duet)-듀에토(duetto), 클라리넷(clarinet)-클라리네트(clarinetto), 베이스 클라리넷(bass clarinet)-바스 클라리네트(bass clarinetto)

(17) 모티브(motive)-모찌브(мотив), 가부키(kabuki)-가부끼(gabuki)

먼저, (15)는 음악 용어인 ‘바순(bassoon)-화고트(fagott)’와 ‘더블바순(double bassoon)-콘트라화고트(kontra fagott)’는 남과 북이 각각 영어와 독일어를 원어로 삼아 차용한 용어이다. 남한에서는 주로 영어권의 음악 용어를 받아들여 ‘bassoon’과 ‘double bassoon’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며, 원어 발음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독일어의 ‘fagott’와 ‘kontra fagott’를 차용하여 ‘화고트’와 ‘콘트라화고트’로 표기한다. 이는 남한이 주로 영어권을 통해 서양 음악 용어를 받아들인 것에 비해, 북한은 독일어와 러시아어의 언어권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16)에서는 영어식 표기와 이탈리아식 표기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영어권의 ‘duet’과 ‘clarinet’을 차용하여 이를 각각 ‘듀엣’과 ‘클라리넷’으로 표기였다. 반면, 북한에서는 이탈리아어의 ‘duetto’와 ‘clarinetto’를 차용하여 ‘듀에토’와 ‘클라리네트’로 표기한다. 이는 이탈리아어 어미 ‘-to’를 반영하여 원어의 형태를 유지하는 북한의 표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베이스 클라리넷(bass clarinet)’과 ‘바스 클라리네트(bass clarinetto)’의 사례는, 남한이 영어의 어휘를 그대로 받아들인 데 반해, 북한은 이탈리아어의 정형화된 명칭을 사용하여 차이를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모티브(motive)-모찌브(мотив)’와 ‘가부키(kabuki)-가부끼(gabuki)’는 차용한 원어의 언어권 차이와 발음 체계의 영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모티브는 남한에서 영어 ‘motive’를 원어로 하여 차용한 반면, 북한은 러시아어 ‘мотив (motif)’를 바탕으로 ‘모찌브’로 표

기한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표기와 발음 모두 러시아식 발음을 따르고 있다. 한편, ‘가부키(kabuki)-가부끼(gabuki)’는 일본어에서 동일하게 차용했지만, 초성을 각각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표기하는 차이를 드러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의 사례들은 남과 북이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차용 경로가 상이함을 보여주며, 그에 따라 표기도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남과 북의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기에 단순히 언어적 통합이 아닌 역사적, 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4 기타 유형

기타 유형은 북한 자료를 널리 확인할 수 없는 한계로 원어를 파악하지 못한 대응 쌍이 대부분이다. 물론 원어와 관계없이 남북 표기의 차이만을 기술할 수 있지만, 3.2와 3.3에서 제시한 유형의 특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몇몇 특기할 만한 사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18) 무소룩스키-무쏘르스끼, 차이콥스키-차이콥스끼, 림스키코르사코프-림스끼꼬르싸꼬브, 드보르자크-드보르자끄

(19) 모스크(mosque-mosgue), 바로크(baroque-baroque), 스�핑크스(sphinx-sphingx)

(20) 색소폰(saxophone)-쌩스폰(saxhorn)

(18)의 예는 음악 교과의 전문용어로 인명이다. 음악 교과에서는 서양 음악과 관련하여 음악가의 이름을 주요 학술 전문용어로 다룬다. 이 용어는 대상이 유일무이한 동일체이므로 전문용어학적 관점에서 표준화된 표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름 표기에서 남북의 차이는 어두 파열음 표기, 어중 모음 표기, 어말 표기 등 복합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향후 외래어 남북 언어 통합의 큰 방향이 현지음을 최대한 반영하

는 방향이 된다면, 이러한 고유명의 표기가 가장 기본적인 사례로 언급될 수 있다.

한편, (19)의 원어 표기는 오폭기 또는 작성자의 실수로 보이는데, 북측의 표기 대부분이 잘못된 원어를 적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크’ 발음과 관련한 오폭기라는 것인데 대부분 ‘g’ 철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과 관련한 사항은 추후 다른 일반 외래어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에서 ‘saxophone’과 ‘saxhorn’은 다른 악기이다. 후자는 호른의 일종으로 색소폰과 모양이 전혀 다르다. 《조선말대사전》에서 확인한 예인데, 사전의 오류로 보인다.

4.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제언

남북한 외래어 통합을 위해서는 차용 원어의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은 주로 영어권을 통해 외래어를 수용한 반면, 북한은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등 유럽 대륙 중심의 언어권에서 외래어를 차용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개념을 표현하더라도 표기와 발음에서 큰 차이를 낳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한의 ‘바순(bassoon)’은 영어에서 유래했지만, 북한의 ‘화고트(fagott)’는 독일어를 기반으로 한다. 통합을 위해서는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차용 경로 중 하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남북이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국제적 사용 빈도가 높은 영어를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하면 실용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발음 규범의 통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한은 동일한 철자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표기에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한의 ‘베이스(bass)-바스(bass)’와 같이 이중모음과 단모음으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외래어의 차용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발음의 문제는 첫 번째에 제시했던 단일화된 표준을 사용하여 통일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

다. 이미 남북 어문규범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따로 제언의 내용을 보태지는 않는다. 다만 엄태경(2015: 26)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의 언어 통합이 원칙과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설정이라기보다는 협상에 의한 결정이라고” 볼 때, 양측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음악과 미술 분야의 용어는 특히 외래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고친 외래어표기’(1984)에서 김정일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나라 말인가를 알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와 같이 언급한 이후, 러시아어 발음 표기에서 원음주의를 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해당 외래어의 원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원어가 명백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고친 원칙 중에 “음악 분야의 이탈리아말 계렬의 외래어는 지금 쓰고 있는 라틴말식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라는 규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원음주의의 기준이 남과 북 모두에 공통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관계를 맺는 국가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 문물의 수입 경로가 달라지면서 외래어에도 차이가 나게 되었다. 또한 외래어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서로 더 가까워지고 외국 문물의 수용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래어에 대한 규범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도 반세기 동안 달라진 외래어 표기법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외래어 표기법의 통일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남북한 중등 교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음악, 미술 교과외의 외래어 전문용어를 수집하여 각각을 대응 쌍을 확인하고 목록화하였다. 그리고 이 목록을 바탕으로 남북 간 외래어 표기와 차용 경로의 차

이를 밝혔다. 그 결과 남북한의 외래어는 차용 원어의 차이와 남북 어문 규범의 차이로 인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표기와 원어를 공유하는 경우(1유형)는 비교적 통합이 용이한 반면, 표기와 원어가 각기 다른 2, 3, 4유형의 대응 쌍은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언어 통합을 모색해야 함을 밝혔다.

외래어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차용 원어를 표준화하고 발음 및 표기 규범의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국제적 사용 빈도가 높은 영어를 표준으로 삼되, 원음주의에 기반하여 남북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발음 및 표기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외래어 통합은 단순한 언어적 조율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의 과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외래어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외래어 표기 통합은 남북 언어 통합의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래어 통합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남북 언어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어문 규범의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방안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통합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겠다.

[Abstract]

An Analysis of the Usage Patterns of Loanwords in South and North Korean Textbooks: Focused on Music and Art Subjects

Eom, Tae kyoung(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loanwords in secondary school music and art textbooks from South and North Korea, focusing on differences in spelling conventions and proposing measures for loanword standardizat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developed independent spelling norms for loanwords, revealing notable differences not only in thei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ut also in their borrowing pathways. This research examines 231 pairs of loanwords extracted from music and art textbooks in South and North Korea, highlighting the differences in normative spelling practices and the linguistic sources of these loanwords. The findings indicate that South Korea predominantly borrows from English and Italian, while North Korea shows significant influence from Russian and French. Additionally, differences in pronunciation and phonological rules result in divergent spellings of identical term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the unification of loanword orthography in the context of South–North language integration and contributes to fostering cultural and linguistic exchange between the two regions.

Key words : South–North Korean loanwords, Music terminology, Art

terminology, Loanword orthography, South-North language integration, Borrowing pathway, Educational textbook language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권명숙 외, 『고급중학교1 예술』, 교육도서출판사, 2013.
권명숙 외, 『고급중학교2 예술』, 교육도서출판사, 2013.
권명숙 외, 『고급중학교3 예술』, 교육도서출판사, 2013.
권명숙 외, 『예술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2013.
교육부, 『편수 자료 II - 인문·사회과학 / 체육·음악·미술 편』, 교육부, 2017.
연혜경 외, 『중학교 미술 1』, 미래엔, 2015.
연혜경 외, 『중학교 미술 2』, 미래엔, 2015.
연혜경 외, 『고등학교 미술』, 미래엔, 2015.
장기범 외, 『중학교 음악 1』, 미래엔, 2015.
장기범 외, 『중학교 음악 2』, 미래엔, 2015.
장기범 외, 『고등학교 음악』, 미래엔, 2015.
최동욱 외, 『초급중학교 1 음악무용』, 교육도서출판사, 2013.
최동욱 외, 『초급중학교 2 음악무용』, 교육도서출판사, 2014.
최동욱 외, 『초급중학교 3 음악무용』, 교육도서출판사, 2015.
최동욱 외, 『초급중학교 1 음악무용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2013.
홍과 외, 『초급중학교 1 미술』, 교육도서출판사, 2013.
홍과 외, 『초급중학교 2 미술』, 교육도서출판사, 2014.
홍과 외, 『초급중학교 3 미술』, 교육도서출판사, 2015.
홍과 외, 『초급중학교 1 미술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2014.
홍과 외, 『고급중학교 1 미술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2014.

□ 사진류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10
사회과학언어연구소, 『조선말대사전』, 동광출판사, 199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2006.

□ 단행본

- 구본관 외,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2002.
국어사정위원회, 『외국말적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2001.

김문오,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국립국어원, 2007.
 김선철,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2008.
 신중진 외,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2019.
 한용운, 『남북 사건의 표제어 차이』, 겨레말사전편찬사업회, 2013.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희진,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연구원, 1996. 73-104면.
 엄태경,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의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2015. 7-39면.
 엄태경, 「개념 조화를 통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새로운 모색」, 『한글』 80-3, 한글학회, 2019-1. 531-560면.
 엄태경, 『한국어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1.
 이관규, 「북한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 양상과 과제」, 『한국어문교육』 3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169-194면.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2011. 245-283면.
 임동훈,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연구원, 1996. 41-61면.
 최유숙, 「남북한 외래어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와 융합』 41-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733-762면.
 최호철, 「남북 외래어 표기 차이와 단일화 모색」, 『한겨레말글연구소 제3회 학술발표회』, 2009. (<https://m.blog.daum.net/cyy003/6028248>) 참조
 Cabre, M.T., *Terminology.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edited by Juan C. Sager and translated by Anne DeCesari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9.
 Sager, J., *A Practical Course in Terminology Process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1990.

투고일: 2024.11.17 심사일: 2024.12.16 게재확정일: 2024.12.19